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24. 3.13(수)~15(금), 일본 도쿄 * 3.14(목) 본회의
- 환영 리셉션(3/13) : The Okura Prestige Tower 41F 룬느(リュンヌ/ Lune)
- 본회의(3/14) : The Okura Prestige Tower 2F 오차드(Orchard)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가자 : 총 83명
- 한국측 : 이인호 체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42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41명
4. 회의주제 :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
- 세션 1 : 경제연계·협력의 확대, 세션 2 :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5. 회의 개최결과

□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의제인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 회의로서의 기능 수행

- ‘23년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경제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상호 이익분야를 찾아 새로운 미래 창조 파트너십 구축 및 한일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 주요 제언내용

○ 한일 경제연계 확대 방안 제언

- (韓) 수소산업분야 협력(①활용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소 공급망 구축, ②한일+수소 생산국(호주 등) 협력모델 구축, ③국제적인 수소기술 표준)
- (日) 중소벤처기업지원의 한일협력→양국경제에 이익되는 기업활동 실현 (①당국간 정보 공유 ②기업 간 연계가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기업간 교류 활성화하는 틀을 이용해 상호 활용(제3국에서의 활동 포함) ③매칭지원, 청년기업가 교류)

○ 한일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제언

- (韓) 로봇산업 분야 인재교류 확대 (①국제공동연구·인재양성, ②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③로봇 경진대회 공동개최, ④규제개선을 위한 인적 교류, ⑤서비스용 로봇산업 협력)
- (日) 한일 협력에 의한 콘텐츠 개발 영역의 확대(①한일교류를 통한 시장확대, ②한일협력 콘텐츠의 해외수출)

○ 기타 한일관계에 관한 제언

- (韓)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한일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접근성 향상), 한일 간 해외진출 공동 플랫폼 운영
- (日) 한일 공통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안보, 전세계 공통과제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SDGs 실현 협력

6.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 개회인사

○ (한국측 체어맨/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2018년 이후 6년만에 일본 도쿄에서 회의 개최
- 2023년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 상호 관광객 제1위 국가 (일→232만명, 한→일 696만명)
-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재개(아시아나항공 : 日대학생 승무원 체험과정, 두산그룹 : 한국 교사 일본경제·산업시찰 프로그램)
- 양국 정부 간 협의 재개 :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24.2.22., 산업부),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회의(24.2.15., 산업부), 한일 ICT정책포럼(23.12.28., 과기정통부)
- 한일협력의 방향 제언
 - ①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 안정적 공급망 구축), ②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한일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접근성 향상)

○ (일본측 체어맨/아소 유타카 회장)

-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 발생시, 한국 정부의 300만달러 인도적 지원과 한국 각지로부터의 따뜻한 지원과 응원에 감사
-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작년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맞이하였음
- 이러한 정상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양국 국민의 깊은 상호 이해와 다양한 교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협조를 도모한다”는 합의를 재검토하여 새롭게,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에너지 자원의 안정 확보 문제, 전세계 공통과제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SDGs 실현 등, 이제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와 과제를 더해, 우리 경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램
-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5.14~15, 도쿄)에서 보다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함
- 일한경제협회·일한재단에서 고교생교류캠프, 한일학생미래회의 등 청소년 교류 사업을 작년부터 재개,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현장시찰 사업도 4년만에 재개 예정

○ (일본측 코디네이터/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준교수)

- 도쿄에서 6년만의 회의 개최, 소중한 기회임
- 이번 회의에서는 2개 세션으로 논의
-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벤처기업 육성은 산업구조의 중요한 포인트로 창업하기 쉬운 사회 만들기가 중요함
- 수소산업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탈탄소가 중요하며, 국민협력이 필요함
- 문화면 교류는 이해 심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로봇분야는 인더스트리4.0 시대의 중요한 산업으로 양국의 기술과 노하우 발전을 기대, 인재교류는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결실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람

○ (한국측 코디네이터/이수철 GH홀딩스 회장)

-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좋아지고 있으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래를 향한 기탄없는 논의의 장을 기대함
- 일본이 TSMC 구마모토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日반도체와 협력했다면 더욱 좋아졌을 것이라 생각함
- 이익이 나야 비즈니스이며, 이익이 나도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엔화 환율 변동 등으로 일본시장을 단기간 짧게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야함

○ (일본측 주최기관/우치다 토시아끼 일한경제협회 전무)

- 코로나 이후 도쿄에서의 6년만의 회의이며, 열띤 논의를 기대
- 양국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경제인이 먼저 움직이고 활동하자는 공동성명을 작년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표
- 양국 정부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작년에 25주년을 맞이하였고, 내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데, 양국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서 본 회의를 개최

○ (한국측 주최기관/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13년 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작년 연말에는 협회와 인연이 깊은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함
- 한일 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임.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한 길로 갈 수 있게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함
- 미래세대, 후배에게 튼튼한 토대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현역들의 역할임, 출산율 저하가 큰 과제인데 인구감소 속도가 늦추어지길 바람

□ 세션1 (한일 경제연계 확대) 주제발표

□ 발표자 : 소마 히로히사(相馬 弘尚)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업무통괄역 겸 국제교류센터장

□ 주 제 : 중소벤처기업지원에 있어서 한일협력의 가능성

- 일본 중소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개요, 한국과의 교류실적, 한일의 공통과제, 구체적 협력추진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
- 중소기업은 일본경제의 중심축/뿌대
 - 日전체 기업수 336만사(대기업 1만사 0.3%, 중소기업 335만사 99.7%)
 - 중소기업 중 약 285.3만사가 소규모 기업, 전체 기업수 336만사의 84.5%
 - 전체 종업원수 4,679만명(대기업 1,459만명 30%, 중소기업 3,220만명 70%)
- 일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
 - 일손 부족 대응, 스타트업 지원, 재해 등에 대한 대비, 사업계속계획 책정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개요
 - 일본내 유일한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시행기관
 -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발전, 사업재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전국 네트워크 활용 고도·광역 지원 추진, 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지원기관의 지원기능 향상 지원, 지역 지원기관, 대학,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복합적 지원
- 한국과의 교류 실적(2023년도)
 - 기업 간 매칭 및 사업 승계, 스타트업 지원 등을 테마로 의견 교환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 한국-일본의 공통과제
 - 저출산 고령화와 사업승계, 재해 등 발생시 사업계속력의 강화
 - 이노베이션 가속화, 창조적 기업생태계 구축
- 구체적인 협력추진의 방향성
 - ①당국간 정보 공유 ② 기업 간 연계가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기업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틀을 이용해 상호 활용(제3국에서의 활동 포함) ③매칭지원, 청년기업가 교류 → 양국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
 - 중소기업청·중소기업벤처부의 정부 간 교류를 바탕으로 각 지원기관 간 혹은 중소기업이나 지원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 이를 통해 쌍방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의 활동이 실현되도록 협력

□ 발표자 : 박성빈 (朴盛彬) 아주대 교수 · 일본정책연구센터장

□ 주 제 :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방안

- 수소 에너지의 장단점, 수소는 에너지원인가?, 수소 전략의 3가지 관점 (환경, 산업, 안보), 수소경제 관련 국제비교, 한일수소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
 - 수소경제 : 에너지 공급부터 수요까지 기존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수소를 에너지 유통수단(energy carrier)으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
- 수소경제의 중요성
 - (에너지 패러다임) 탈탄소화 수소 중심, 국내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기여, (에너지 공급) 소규모 투자로 분산형 에너지 수급, 입지적 제약이 적음, (경쟁) 기술경쟁력 확보·규모의 경제, (환경성) 친환경적 온실가스 배출
- 수소 에너지의 장점·단점
 - (장점) 친환경, 자유로운 저장 이동성, 다양한 활용처, 발전 효율성, 풍부한 원료
 - (단점)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 비용, 수소의 불안정성과 폭발성, 높은저장/운송 비용, 초기의 낮은 기술 성숙도, 기술표준·국제규범 미비
- 수소는 에너지원인가?
 - 한국·일본 이외의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에너지 캐리어(저장체)로 인식
 - 한국과 일본은 주요국 중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
 - 한일 양국은 법적으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수소경제 전략의 3가지 관점
 - (환경정책)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
 - (산업정책) 미래 유망한 신산업으로서 중요
 - (에너지 안보)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안보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
- 한일 수소협력 방안
 - 수소의 활용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철강, 화학, 발전, 전력 등)는 적지 않으며, 수소 수요국인 한일이 협력
 - 한일+수소 생산국(호주 등)협력모델 구축(한일협력으로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구축, 한일 정부의 금융/재정지원 강화 필요)
 - * 한일이 협력하여 해외(호주, 아프리카 등) 수소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공동 해상운송, 수소 활용에 이르는 글로벌 수소 공급망/생태계를 구축
 - 한일간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관계의 강화(탄소중립실현, 경제적/전략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상호신뢰 증진으로 연결)
 - 제도 측면에서의 한일협력 강화(수소 관련 국제규범은 형성과정, 수소기술 협력과 더불어 수소 관련 제도·정책 협력을 강화, 국제적인 수소기술 표준·제도표준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세션1 (한일 경제연계 확대) 토론

○ (日 코디네이터)

- 日제조업의 40%가 해외생산, 국내시장 축소와 공동화가 우려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이 필요, 한일 협력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과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높은 만큼, 상호 정보교환 및 매칭활성화를 기대

○ (韓 코디네이터)

- 수소산업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함
- 글로벌 수소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수소 산업의 국제 룰 형성과정에서의 규제 논의 동향에 대해 질문

○ (아주대학교)

- 이산화탄소 배출문제, 안전문제, 충전규격 등 유럽이 국제규범을 선도
- 기술, 정부보조금 범위 등 다양한 전문가 논의 필요, 한일의 목소리 제시 필요

○ (미쓰비시상사)

- 수소는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지산 지소(地産地消)’에서 출발하여 발전, 단기적 추진이 어려움
- 연구, 개발, 경험 축적하면서 추진

○ (마루베니)

- 영업본부에 확인 필요, 나중에 소개

○ (경제산업성)

- 수소, 암모니아 관련 자원에너지청, 산업부 국장급 의견교환(1/15)
- 수소 활용 방안 등 정책 공유, 정기적으로 대화 예정
- EU의 규격을 쓰기 힘들어지면 곤란하므로, 대형 유저인 한일이 협력하여 수소 산업 규격을 만드는 것이 중요

○ (한일경제협회)

-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향한 수소산업과 로봇산업 등의 한일협력 배경 설명
- 교역과 투자는 포화상태로 새로운 분야(수소, 로봇), 제3국 공동진출 성과를 기대

○ (日 체어맨)

-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협력 가능성’ 발표자료의 10p 지원방안 사례, 14p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숫자적 목표 제시 요망
- KPI(핵심성과지표)를 만들어 추가 게재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큐슈 후쿠오카지역본부 등 日전국 각지에 지역본부가 있음
-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제휴하여 IT 전문인재 부족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3천명의 풀을 활용
- 면적(面的)인 지원 사례로서, 지역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실시 중이며 사업승계, M&A, 법적문제 등 전문가 파견 지원 중

○ (도레이인터내셔널)

- 중소기업의 과제로써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 고령화는 한일이 동일한 상황이며, 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승계의 답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한일+수소 생산국(호주)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사업에 흥미 깊으며, 활용산업 육성 및 표준화를 위한 정부 레벨의 지원이 필요

○ (아주대학교)

- EU가 국제표준 선도, 미국의 자국 법령이 한일에 영향
- 장기적 협력 필요한 산업의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
- 자원 확보가 중요(해상루트 위험성, 코스트 비용 증가), 국제협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
- 제3국 인프라 사업의 경우 선진국인 호주는 ODA 활용 어려움, 선진국 수소생산 비용 조달에 있어서 정책금융 활용 등 정부지혜 빌려야 함

○ (주일한국대사관)

- 1월의 정부 간 대화는 정보교환 단계로, 기업들의 움직임 지원 위해 계속 협의 예정임
- 규범 형성, 수소 서플라이체인 지원 등 협의해 나가고 있어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며, 기업 필요한 부분 지원해 나갈 것임

○ (일한경제협회)

- 한일협력에 의한 제3국 인프라 수출 모델로서의 몽골 국제공항 건설 사례 설명(-40~50℃ 몽골의 겨울 추위에 대처 가능한 한국의 건설사 참여)
- 서로의 장점을 인식하여 협업하는 새로운 스킴이 탄생
-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제3국 현장 시찰을 2024년에 부활 예정임 (몽골사례를 토대로 방글라데시 인프라 건설 협력)

○ (시즈오카현립대학)

- 서울-도쿄 간 논의 활발, 중소기업-대기업 격차, 저출산 문제, 수도권 1극 집중 문제
- 지방도시를 의식한 정책이 있는지?(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지방도시는 수소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약한데 한국의 수소경제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아주대)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본부는 도쿄에 있으며, 현장은 전국의 9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소재
- 지방도시별로 지원하며, 중부분부에서 시즈오카현을 지원
- 해외진출 희망시 JETRO등과 역할분담하여 수출 1만개사 목표로 지원
- 사업승계문제, 고령화, 상속세 유예조치, 제3자 양도 등 중소기업 지원

○ (아주대학교)

- 지역경제 활성화 모멘텀 필요
- 한국내 수소전략은 정부주도로 추진, 지자체는 참여하는 수준
- 지방소멸 방지 위해 지방의 수소활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지방간 수소협력 논의가 필요함

□ 세션2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주제발표

- 발표자 : 이시이 준야(石井 順也) (주)하쿠호도 테마디자인국 부장
- 주 제 : ~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향해 ~ 광고회사의 사례 소개

○ '폭넓고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위해' 광고회사의 관점에서 본 한일교류의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

- 1895년 창업 마케팅 회사, 일본국내 매출액 2위, 세계시장 9위 광고회사
- 세계 20개국 사업 진출, Hauhodo Cheil(제일기획-하쿠호도 합작 종합광고대행사)
- 2023년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담당

○ 광고회사에 있어서의 한일 경제교류 사례 소개

- 지금까지 클라이언트·글로벌 관점이 중심이었지만, 향후는 콘텐츠 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콘텐츠 수출입에서, 향후는 한일협력 콘텐츠 개발 증가 예상, 나아가 한일협력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되어 갈 것으로 전망

* 디지털 할리우드(주)-한국콘텐츠진흥원 연계하여 콘텐츠계 스타트업 발굴·성장, CJ ENM-요시모토흥업 합작사인 LAPONE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JO1(제이오원)을 기용한 기획을 하쿠호도에서 프로듀싱 중

* JO1(제이오원) : '19.12.11, 한일 공동제작 PRODUCE 101 JAPAN 최종회를 통해 결성된 일본의 11인조 보이 그룹)

○ HOT JAPAN with JO1 프로젝트는, JO1이 앰버서더가 되어 일본 전국의 HOT한 매력을 엔터테인먼트에 담아, 일본의 지방창생 / 일본으로부터 세계에 내세우는 매력 발굴·PR 추진

- 애프터 코로나로 일본에 대한 인바운드 기대가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제1탄 「Born to be Wild × Mt.Fuji」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는 엔터테인먼트
- 전국의 기업·관공서·지방 자치단체 등, 생각을 함께하는 다양한 파트너분들을 모집하고 있음
- JO1·JAM(팬)이 가지는 파워로 마케팅과 일본의 호응을 양립

○ 광고회사의 한일 교류는 클라이언트·글로벌 관점에서의 전개가 중심이었지만, 향후는 한일 협력에 의한 '콘텐츠 영역의 확대'가 기대됨



- 한일 교류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하쿠호도, Cheil Hakuholdo도 하나가 되어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임

□ 발표자 : 박상수 (朴相洙)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실장

□ 주 제 : 한일 첨단로봇산업 현황, 전략 및 협력 방안

- 인재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

○ 글로벌 및 한일 로봇산업 동향, 한일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로봇산업 협력 방안(인재교류 확대)에 대해 발표

○ 글로벌 및 한일 로봇산업 동향

- 세계 제조용 로봇시장 동향

* 수요 : 中52.5%, 日9.1%, 美7.2%, 韓5.7% ('26년까지 연평균 6.8% 성장세)

* 공급 : 日46.4%, 中19.1%, 獨6.4%, 韓4.6%

- 수직 다관절 로봇 세계시장 점유율

* 공급 : 日(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유럽(ABB, 쿠카) 5대 기업이 90%점유

- 세계 제조용 로봇 수출 시장 점유율

* 점유율 : 日36.1%, 獨10.2%, 中5.9%, 美5.4%, 韓2.8%

- 한국 로봇산업 동향

* 2022년 한국 제조용 로봇 총 누적 운용 대수는 374,737대로 전년 대비 2.2%, 최근 5년간(2017~2022) 연평균 6.5% 증가

- 일본 로봇산업 동향

* 2022년 일본의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 대수는 50,413대로 전년 대비 8.6%,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증가(日로봇운용 대수 : 414,281대)

○ 한일 로봇산업 육성 정책

- 한국 로봇산업 육성 정책

*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K-로봇경제 실현.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23.11)

- 일본 로봇산업 육성 정책

* 로봇 신(新)전략 ('15.01) : 일본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저출산, 고령화 등)를 로봇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로봇산업을 육성

* 로봇에 의한 사회변혁추진 계획 ('19.07)

* 일본형 문샷(MoonShot) 연구개발('18년),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로봇 액션플랜 발표 ('23년), 일본로봇공업회(JARA)창립 50주년을 맞아 로봇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로봇산업비전 2050」 공표('23년)

○ 한일 로봇산업 협력 방안(인재교류 확대)

- (협력현황) 2000년 일본로봇공업회와 한국의 로봇협회 간 MOU 체결이후, 민간 교류를 통한 시장·표준·기술협력 전개

- (인재교류확대 방안) ①국제공동연구·인재양성, ②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③로봇 경진대회 공동개최, ④규제개선을 위한 인적교류, ⑤서비스용 로봇 산업 협력

□ 세션2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토론

○ (日코디네이터)

- 지방으로 부터의 정보발신에 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편임
- 슬램덩크 성지순례(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 등)
- 콘텐츠의 매력 발신이 전 산업으로 파급

○ (韓코디네이터)

- 서비스용 로봇산업 수요 증가(식당 종사자 감소, 키오스크 이용 고령자 배려 등 필요)

○ (KOTRA)

- 한국 웹툰 제작 회사, 등장인물의 日피규어화 협업, 전세계 진출
- 서비스용 로봇산업 중심 협력에 공감
-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 자율주행차 등 한일협력과 공동개발 가능성 질문

○ (산업연구원)

- AI접목 로봇인 협동 로봇(덴마크 세계1위)은 중소기업에 유리하며, 틈새 시장 확대를 위해 한일협력 가능성이 높음
- AI로봇 윤리문제 대두, 한일협력 공통관심사

○ (오가키정공)

- 설립 55주년, 한국과 40년간의 교류, 인턴십 수용(1천명/년)
- 사람은 교류가 필요, 국가간 정서, 이웃나라 관점에서 사람을 중시
- 일본내 5명의 한국인 현역 근무(비밀정보는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음)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는 전통산업으로, 이웃 전제로 롱텀 릴레이션십이 중요
- 양국 어려운 시기, 서로의 입장에서 불합리성 극복 노력 필요

○ (삼성전자)

- 2021년 로봇산업 미래전략 수립, 돌봄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사업
- 새로운 성장산업은 니즈가 있으면 시장 진출,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로봇은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며 신 성장 산업임

○ (가네다홀딩스/관서경제동우회)

- 1993년도 테크노마트 사업 실시 경험, 함께하는 일 찾는 것을 제안
- 오사카의 중소기업들은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약함, 한일이 주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 판매 확대 기대함

○ (스미토모상사)

- 일본의 로봇활용도(로봇밀도)가 낮다고 설명, 과제와 어드바이스 요청

○ (산업연구원)

- 日로봇밀도 수치로 활용도가 낮지는 않으며, 로봇 구성(단순로봇, 다관절 로봇)이 중요함
- 산업용, 제조용 로봇은 日이 최고 수준이며, 서비스용 로봇산업 중심으로 협업이 가능
- 시장 선점이 중요하며, 실외 이동로봇의 경우 상호 인증과 협력으로 시장 활성화가 될 것임

○ (일간공업신문)

- 서비스 로봇은 미래 시장으로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동향이 중요(실력 향상, 경계 대상)

○ (호텔오쿠라도쿄)

- 최근 日호텔 숙박료 상승, 런던·파리에 비교하면 높지 않음(50%수준)
- 도쿄 숙박요금은 외국 기업이 주도, 동반 상승
- 日관광객 증가로 숙박세, 관광세 도입. 지방도시에서 도쿄 출장시 출장여비 낮아 수도권 호텔을 이용

○ (강원특별자치도 일본본부)

- 강원도 제품의 일본 수출 지원 업무, 일본 식품회사에 판매 지원
- 지자체 자매도시에 역점, 청소년 교류 사업 등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

○ (광주광역시 도쿄사무소)

- 농산품 아닌 신기술 수출 및 투자 유치 활동
- 日알프스 한국투자, 자동차 산업 협력 위해 노력
- 광주광역시 인지도 향상 노력

○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 日지방도시 30여년 간 방문, 시장진출 연결 활동
- 日오사카의 침수시 ‘비상탈출 창문’ 국내 도입, 韓영천의 지진방지용 철근 일본 진출

□ 전체 토론

○ (오비린대학)

- 로봇관계 한일협력 사례 있는지? 없다면 장벽이나 과제 있는지?

○ (산업연구원)

- 서비스용 로봇 협력 사례는 없음, 日IREX 로봇전시회에서 6년 만에 만나서 서비스 로봇 협력 공감대 형성
- 한일 유관기관, 학계, 정부기관이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 가동이 필요

○ ((주)오브젝트)

- 스마트 팩토리, 위치시스템 스타트업 기업으로 당사자 간 의논의 장 기대
- 우수한 인재 유치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인건비 지원 제도’ 기대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日중소기업 지원조직으로 기술개발, 인큐베이션 시설 보유

- 기술 시즈 키워나가기 위한 지자체 협력, 입주지원, 해외 전개시 거점 역할. 스타트업 지원 계속 및 정보교환 기대

○ (하쿠호도)

- HOT JAPAN 일본 소개를 기획, JO1 투입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본측 파트너 기관 부재로 경제산업성이 대응, 日조직 만들어서 비즈니스가 판매되기를 기대

○ (티오이십일컴즈)

- IT중소기업으로 일본·중국과 무역거래, 비즈니스를 알리는 기회가 없었음(신뢰 구축)
- 한국 중소기업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장, 대화할 수 있는 장(미팅, 회의)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중소기업 간 교류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매칭 위한 여러 가지 툴을 갖고 있으며, 분야별·국가별 매칭 기회가 있음

○ (교도통신사)

- 10년전 한국특파원으로 근무
- 인도 뉴델리에서 근무, 일본-인도 파트너십 체결하였으나 약속이행이 안되며,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더 이익
- 저출산 고령화로 서비스로봇 산업이 가능성이 높음
- 한국 내의 로봇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산업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일간의 로봇산업 협력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는지?

○ (산업연구원)

- 고령화가 메가 트렌드이며, 로봇활용은 모든 영역에 활용될 것임
- 고령화로 서비스로봇은 개호/간병 중심으로 확대 전망

○ (교세이국제특허정보)

- 특허업무 담당, 현대차의 일본시장 진출을 기대하며 좋은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람

○ (경단련)

- 한경협과 협력하여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
- 한국과의 교류는 젓가락문화의 공통점이 있고 마음이 잘 통하여 교류 확대를 기대함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
- 5/22~23 도쿄국제포럼에서 한국상품전시상담회 개최
- 식품, 소비재 상담 플랫폼임
- 한일 간 해외진출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제3국으로 진출 확대 기대

□ 총괄 · 마무리

○ (韓코디네이터)

- 신뢰+롱텀=日시장진출
- (주)아이패밀리SC의 日색조화장품시장 진출 성공사례 소개
①日유통회사 + ②소비자 감성 마케팅(차별성)
- 단기평가(엔센티브, 성과금)보다 장기 전략(10년 평가)이 중요

○ (日코디네이터)

- 코로나 이후 실체가 있는 교류가 중요
- 인도, 방글라데시 등 비즈니스 기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민들의 상호 관심이 중요, 대면교류 중요성, 규범·체제 플랫폼 구축

○ (韓체어맨)

- 한일경제협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서로의 이익이 되어야 지속가능하며, 분야와 방식이 중요
- 해외진출에 있어서 한국은 지원 플랫폼(경제단체)이 강한 편임
- 수소산업은 제도, 기술표준,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협력을 기대
- 콘텐츠 분야는 일본의 잠재력과 실력이 우수하며, HOT JAPAN과 관광의 연계는 인상적이었음. 콘텐츠 한일 공동개발 위해 무협에서 지원
- 서비스 로봇 규제 개선, 로봇 윤리 협력, 공동연구 기대

○ (日체어맨)

-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 부족, 경제 저성장, 국가적 문제 직면
-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KPI가 필요하며, 액션이 필요함
- 숫자 목표를 설정하여 변화를 도모, 큐슈 7현이 먼저 움직이고 모멘텀이 되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임
- 윤 대통령께서 한일관계를 잘 이끌어 주고 계시며, 1억2천+5천=1억7천만 시장이 차세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지금 아니면 안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함

○ (한일경제협회)

- 한일재단에서 AI, IT,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
- 한일 파트너십 제2선언위해 경제인 버전의 파트너십 공성성명 기획중

○ (일한경제협회)

- 1세션 경제연계, 2세션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향해 제56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연계하여 공동성명을 발신 예정

7. 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 평가

- 코로나 이후 도쿄에서의 6년만의 회의 개최로 한일관계 정상화 1년, 양국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의 방향을 논의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10)이 작년에 25주년을 맞이하였고,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양국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서 의미 깊은 회의가 되었음
 - 한국 대통령실이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담은 新 공동 문서 발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

□ 후속조치

-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25.5.15 도쿄)에서의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문 작성
-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제발표자 확정 및 발표내용에 반영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2025년)을 앞두고, 한일 경제인판 한일협력의 방향성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에 반영



무협 부회장 "한일, 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인적 교류 고민도"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4.[한국무역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민간 경제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는 도쿄에서 6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고, 한국·일본 양국의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 협력 가능성,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 소개,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재개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인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산업 협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며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4047000003?input=1195m>

무협,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도쿄서 6년 만에 개최 “한일 관계 정상화 1년, 미래 파트너십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 의제를 상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도쿄에서 6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한국과 일본 정부·기업·학계·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연계, 협력의 확대’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협력 가능성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주제로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 소개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이 재개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산업 협력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 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뤄 냈다”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GX), 디지털 전환(DX)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오는 5월 ‘제1차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 경제 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한일경제연계 및 상호 교류 확대를 모색한다. 6월 13~14일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4’에는 일본을 주변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newsId=02194326638823320&mediaCodeNo=257&OutLnkChk=Y>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쿄서 6년 만에 개최...파트너십 강화 논의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30./뉴스1

한국무역협회는 13~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양국 간 대표적 민간간의 경제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대면 회의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기업·학계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경제 연계, 협력의 확대'와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등 두 세션으로 나눠 발표가 이어졌다.

뉴스1 박주평 기자 jupy@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5349285>

무협 “미래세대 위한 한일 협력 이어나가야”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쿄 개최 무역 등 경제현안 · 협력방안 모색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KITA)가 13~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양국 간 개최되는 대표적 민간 경제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5월 13~15일)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는 도쿄에서 6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한국과 일본 정부 · 기업 · 학계 · 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연계, 협력의 확대’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협력 가능성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주제로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 소개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이 재개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 산업 협력 뿐만 아니라 수소·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산업 협력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다”면서 “2024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이인호 부회장은 일본 경제동우회 부대표간사인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일 민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5월 제1차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 경제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일 경제 연계 및 상호 교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3~14일 개최되는 ‘넥스트라이즈 2024’에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15050280>

머니투데이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무협 부회장 "한일, 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가 14일(목)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올해 회의는 13~14일 이틀간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 주제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한국, 일본 정부·기업·학계·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이 재개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산업 협력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2024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및 통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 제1차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 경제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 '넥스트라이즈 2024(NextRise 2024)'에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1410554449503>

이인호 무협 부회장 "한일, AI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앞으로 한일 양국은 전통적인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산업 협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무협이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연 이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재개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민간 경제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는 도쿄에서 6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고 한국·일본 양국의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 협력 가능성,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 소개,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측 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며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31411381870831>

무협, 도쿄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인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이다.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6년 만에 도쿄에서 대면 형태로 열렸다. 양국 정부·기업·학계·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연계, 협력의 확대'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협력 가능성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은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주제로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 소개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 등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 라면서 “전통적 산업 협력뿐 아니라 수소·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인호 부회장은 회의 이후 일본 경제동우회 부대표 간사인 다마쓰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한일 민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신문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40314000203>

이인호 무협 부회장 "韓日, 수소 · 반도체 · AI 협력 강화해야"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열린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무협 제공

한국무역협회가 '한일 관계 정상화 1년'을 맞아 일본에서 6년 만에 '한일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협은 지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 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 회의체인 한일 경제인회의(5월 13~15일 · 도쿄)의 의제 조율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에서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일본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 안보 ·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이 재개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전통적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 · 반도체 ·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 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냈다”면서 “2024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공통의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녹색 전환(GX), 디지털 전환(DX)등에 있어서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부회장은 일본 경제동우회 부대표간사인 다마쓰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한일 민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협은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및 통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일교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효성 조현준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오는 5월 한일 특위와 일본 경제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곧이어 6월엔 서울에서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4에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한다.

파이낸셜 뉴스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403141549006269>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쿄에서 6년 만에 대면 개최

한국과 일본의 정부·기업·학계·경제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도쿄에 모여 5월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관련 논의를 나눴다.

한국무역협회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양국 간 개최되는 대표적 민간 경제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대면 회의로 개최되는 것은 6년 만이다.

회의는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연계, 협력의 확대’를 주제로 소마 히로히사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 업무총괄역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박성빈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을 주제로 이시이 준야 하코호도 테마비즈니스디자인국 부장이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에 대해 박상수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이 재개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산업 협력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유타카(麻生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냈다”면서 “2024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5월 제1차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 경제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일 경제 연계 및 상호 교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6월 개최되는 스타트업 행사 ‘넥스트라이즈 2024(NextRise 2024)’에는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신문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90882>

대한경제

“韓・日, 수소・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해야”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 이하 무역협)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양국 간 개최되는 대표적 민간 경제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는 도쿄에서 6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한국 및 일본 정부·기업·학계·경제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 협력 가능성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 방안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 광고회사 사례 소개 △한일 첨단 로봇산업 협력 방안, 인재 교류 확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 안보 ·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재개된 점은 고무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 · 반도체 · 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면서 “경제 · 산업 협력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 · 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2024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화답했다.

회의 이후 이 부회장은 일본 경제동우회 부대표간사인 다마즈카 겐이치(玉塚元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일 민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무협은 한일 외교 복원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및 통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제1차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 경제동우회 일한교류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일 경제 연계 및 상호 교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3일~14일 개최되는 ‘넥스트라이즈 2024(NextRise 2024)’ 에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한경제 김희용 기자 hyong@dnews.co.kr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3141110405610453

첨부1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일정표

| 일 자 | 시 간 | 내 용 |
|--------------|-------------------|---------------------------------------------------------------------------------------------------------------------------------------------------------------------------------------------------------------------------------------|
| 3. 13 (수) | 09:00~11:05 |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 (KE 1201) |
| | 18:00~20:00 (120) | 리셉션 (장소 : The Okura Prestige Tower 41F La lune(라 룬느)) 양국 체어맨 인사 (5)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5) ▶ 이 인 호(李仁浩)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 | | |
| 3. 14 (목) | 09:30~09:35 (05) | 접 수 (장소 : The Okura Prestige 2F Orchard(오차드)) |
| | 09:35~09:45 (10) | 개 회 개회인사 (5)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체어맨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5) ▶ 이 인 호(李仁浩) 한국측 체어맨 /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 | 09:45~09:55 (10) | 양국 코디네이터 인사 (5) ▶ 이와다레 요시히코(岩垂 好彦) 오비린(桜美林)대학 준교수 (5) ▶ 이 수 철(李洙喆) (주)GH Holdings 회장 |
| | 09:55~10:05 (10) | 양국 주최기관 인사 (5) ▶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5) ▶ 서 석 숭(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 | 10:05~11:30 (85) | 세션(I) : 경제연계 · 협력의 확대 (15) ▶ 소마 히로마사(相馬 弘尚)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업무총괄역 · 국제교류센터장 「중소벤처기업 지원에서 한일협력 가능성」 (15) ▶ 박성빈(朴盛彬)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일본정책연구센터장 「한일 수소경제 산업전략 및 협력방안」 (45) ▶ 1세션 질의응답 · 의견교환 |
| | 11:30~12:30 (60) | 오찬 (장소 : The Okura Prestige 2F Orchard(오차드)) |
| | 12:35~14:00 (85) | 세션(II) :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15) ▶ 이시이 준야(石井 順也) (주)하쿠호도 테마비즈니스디자인국 부장 「~ 폭넓고 다양한 교류 실현을 위해 ~ 광고회사 사례 소개」 (15) ▶ 박상수(朴相洙)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기계 · 방위산업실장 「한일 첨단로봇산업 현황, 전략 및 협력방안 ~ 인재교류 확대 ~」 (45) ▶ 2세션 질의응답 · 의견교환 |
| | 14:00~15:00 (60) | 전체토론 |
| | 15:00~15:30 (30) | 양국 코디네이터 · 체어맨 총괄 양국 사무국인사 / 폐회 |
| | 19:50~22:25 |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KE 2104) |
| 3. 15 (금) | 12:25~15:00 |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KE 2102) |

※3.15(금) 개별이동

첨부2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 한국측

소속 가나다 順

| No. | 소속/부서 | 직 함 | 성 명 | | | 비 고 |
|-----|--------------------------|---------------|-----|-----|-----------------|-------------|
| | | | 한글 | 한자 | 영문 | |
| 1 | (사)한국무역협회 | 상근부회장 | 이인호 | 李仁浩 | LEE Inho | 체어맨 |
| 2 | (주)GH홀딩스 | 회 장 | 이수철 | 李洙喆 | LEE Soo-Chul | 코디네이터 |
| 3 | (사)한일경제협회 | 부 회 장 | 서석승 | 徐錫崇 | SEO Seok-Soong | 주최기관 대 표 |
| 4 |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 일본정책연구센터 | 교수 / 센터장 | 박성빈 | 朴盛彬 | PAK Seong-Bin | 1세션 발표 |
| 5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 기계·방위 산업실장 | 박상수 | 朴相洙 | PARK Sang-Soo | 2세션 발표 |
| 6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 사 무 관 | 윤소희 | 尹昭熙 | YOON So-Hee | Observer |
| 7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경제공사 | 강명일 | 姜明逸 | KANG Myong-Il | |
| 8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상 무 관 | 서가람 | 徐가람 | SEO Ga-Ram | |
| 9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상무관보 | 김상연 | 金相然 | KIM Sang-Yeon | |
| 10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2등서기관 | 권자영 | 權慈英 | KWON Ja-Young | |
| 11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3등서기관 | 이정은 | 李正恩 | LEE Jung-Eun | |
| 12 | 가네다홀딩스 | 회 장 | 김덕길 | 金德吉 | KIM Duk-Kil | |
| 13 | 강원특별자치도 일본본부 | 본 부 장 | 김혜자 | 金惠子 | KIM Hye-Ja | |
| 14 | 강원특별자치도 일본본부 | 부 장 | 양현정 | 楊賢正 | YANG Hyeon-Jung | |
| 15 | 광주광역시 도교사무소 | 소 장 | 박유진 | 朴兪眞 | PARK You-Jin | |
| 16 |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 대 표 | 박남숙 | 朴南淑 | PARK Nam-Sook | |
| 1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지역본부 | 본 부 장 | 김삼식 | 金三植 | KIM Sam-Sik | |
| 1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지역본부 | 부 관 장 | 이병욱 | 李秉昱 | LEE Byoung-Uk | |
| 19 | 삼성물산 재팬 | 사 장 | 정원석 | 鄭源錫 | JUNG Won-Seok | |
| 20 | 삼성전자 재팬 | 부 장 | 황진오 | 黃眞吾 | HWANG Jin-O | |
| 21 | SK Japan Inc. | 부 사 장 | 이정환 | 李政桓 | LEE Jung-Hwan | |

| No. | 소속/부서 | 직 함 | 성 명 | | | 비 고 |
|-----|--------------------|----------------|------------|-------|----------------|-----|
| | | | 한글 | 한자 | 영문 | |
| 22 | SK Japan Inc. | C F O | 강하라 | 管河羅 | KAN Ha-Ra | |
| 23 | (주)오브젝트 | 대 표 | 조태희 | 趙泰熙 | JO Tae-Hee | |
| 24 | (주)오브젝트 | 책 임 | 이슬아 | 李璵雅 | LEE Seul-Ah | |
| 25 | 제오빌더 | 이 사 | 이준우 | 李俊雨 | LEE Jun-Woo | |
| 26 | 치요다개발주식회사 | 사 장 | 아리마 타카시 | 有馬 貴司 | ARIMA Takashi | |
| 27 | 치요다개발주식회사 | 대 리 | 서운환 | 徐琬煥 | SEO Yun-Hwan | |
| 28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상무 / 일본지사장 | 나승태 | 羅承泰 | NA Seung-Tae | |
| 29 | (주)티오이십일콤즈 | 대표이사 | 류병철 | 柳秉喆 | RYU Byong-Chul | |
| 30 | 한국무역보험공사 동경지사 | 지 사 장 | 정정목 | 鄭漬穆 | JUNG Jung-Mok | |
| 31 | (사)한국무역협회 | 글로벌협력 본 부 장 | 김기현 | 金起鉉 | KIM Gi-Hyun | |
| 32 | (사)한국무역협회 지역협력실 | 차 장 | 김여진 | 金麗珍 | KIM Ryeo-Jin | |
| 33 | (사)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 지 부 장 | 박강표 | 朴剛杓 | PARK Kang-Pyo | |
| 34 | (사)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 차 장 | 방혜경 | 方惠景 | BANG Hye-Kyung | |
| 35 | 한국수출입은행 동경지점 | 차 장 | 임민교 | 任珉敎 | YIM Min-Kyo | |
| 36 | 한국시멘트협회 | 부 회 장 | 이창기 | 李昌起 | LEE Chang-Ki | |
| 37 | (사)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 회 장 | 고동욱 | 高東郁 | KO Dong-Uk | |
| 38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 소 장 | 김정규 | 金廷圭 | KIM Jeong-Gyu | |
| 39 | (사)한일경제협회 | 사무국장 | 조덕묘 | 趙德卯 | CHO Duck-Myo | 사무국 |
| 40 | (사)한일경제협회 | 차 장 | 서광현 | 徐光賢 | SUH Kwang-Hyun | |
| 41 | (사)한일경제협회 | 과 장 | 이유경 | 李裕卿 | LEE You-Kyong | |
| 42 | (사)한일경제협회 | 연 구 원 | 권혁인 | 權赫寅 | KWON Hyeok-In | |

□ 일본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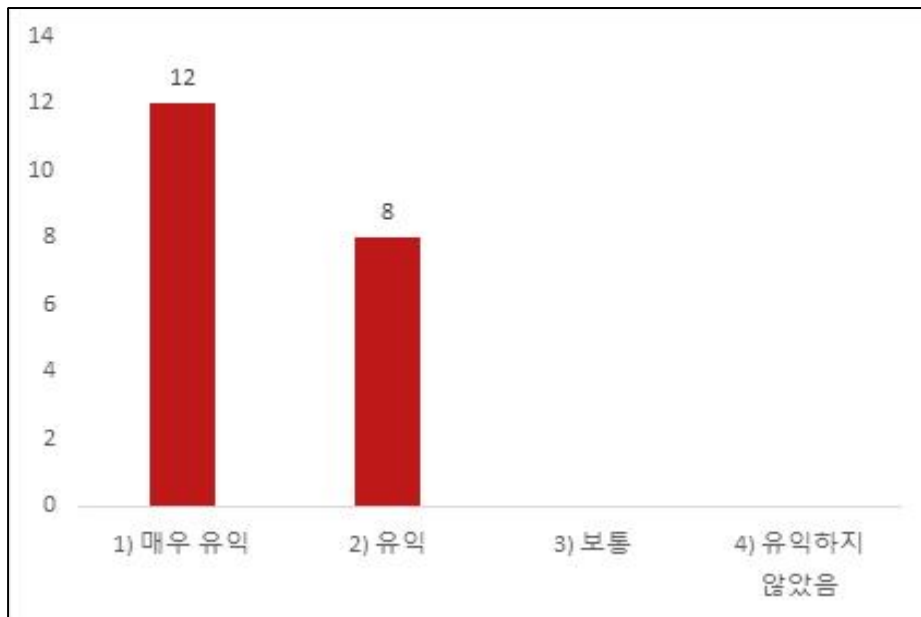
일본측 기재 順

| No. | 소속/부서 | 직 함 | 성 명 | | | 비고 |
|-----|---------------------------------|--------------------|--------------|-------|--------------------|-----------|
| | | | 한글 | 한자 | 영문 | |
| 1 | (일사)일한경제협회, 아소시멘트주식회사 | 부 회 장, 회 장 | 아소 유타카 | 麻生 泰 | ASO Yutaka | 체어맨 |
| 2 | 오비린대학 비즈니스매니지먼트학군 | 준 교 수 | 이와다레 요시히코 | 岩垂 好彦 | IWADARE Yoshihiko | 코디네이터 |
| 3 |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업무총괄역 · 국제교류센터장 | 소마 히로히사 | 相馬 弘尚 | SOMA Hirohisa | 1세션 발표 |
| 4 | 주식회사하쿠호도 테마비즈니스디자인국 | 부 장 | 이시이 준야 | 石井 順也 | ISHII Junya | 2세션 발표 |
| 5 | 오가키정공주식회사 | 이사회장 | 우에다 가즈히로 | 上田 勝弘 | UEDA Katsuhiko | |
| 6 | 주식회사닛칸공업신문사 | 대표이사사장 | 이미즈 하루히로 | 井水 治博 | IMIZU Haruhiro | |
| 7 | (주)호텔오쿠라도쿄 | 대표이사회장 | 나루세 마사하루 | 成瀬 正治 | NARUSE Masaharu | |
| 8 | 도레이인터내셔널주식회사 | 대표이사사장 | 카타오카 토모히코 | 片岡 智彦 | KATAOKA Tomohiko | |
| 9 | 아사히그룹홀딩스(주) 비서실 | 시니어매니저 | 후지노 마사히로 | 藤野 正博 | FUJINO Masahiro | |
| 10 | 스미토모상사(주) 글로벌전략추진부 | 부장대리 | 시미즈 키타루 | 清水 来 | SHIMIZU Kitaru | |
| 11 | 미쓰비시상사(주) 지역전략부 | 동아시아팀장 | 모리하라 야스오 | 森原 康夫 | MORIHARA Yasuo | |
| 12 | (일사)일본무역회 정책업무 제3그룹 | | 미야이시 타케시 | 宮石 岳史 | MIYAISHI Takeshi | |
| 13 | 마루베니주식회사 지역총괄부 중국 · 동아시아과 | 과 장 | 유즈리하 토시히코 | 杠 俊彦 | YUZURIHA Toshihiko | |
| 14 | (일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국제협력본부 | 주 간 | 카와사키 시게하루 | 川崎 茂治 | KAWASAKI Shigeharu | |
| 15 | (공재)일한문화교류기금 | 사무국장 | 오사 히사미츠 | 長 久光 | OSA Hisamitsu | |
| 16 |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 교 수 | 코하리 스스무 | 小針 進 | KOHARI Susumu | |
| 17 | 오비린대학 리버털아츠학군 | 교 수 | 츠카모토 소이치 | 塚本 壮一 | TSUKAMOTO Soichi | |
| 18 | NHK 해설위원실 | 해설주간 | 이데이시 타다시 | 出石 直 | IDEISHI Tadashi | |
| 19 |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과 | 주 임 | 쿠시다 레이 | 櫛田 怜 | KUSHIDA Rei | |
| 20 |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한국실 | 실 장 | 하스누마 요시카즈 | 蓮沼 佳和 | HASUNUMA Yoshikazu | |
| 21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동북아시아 제1과 | 과 장 | 요시히로 토모코 | 吉廣 朋子 | YOSHIHIRO Tomoko | |
| 22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동북아시아 제1과 | 일한교류실장 | 스즈키 마사토 | 鈴木 正人 | SUZUKI Masato | |
| 23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동북아시아 제1과 | 과장보좌 | 오시마 다이 | 大島 大 | OSHIMA Dai | |

| No. | 소속/부서 | 직 합 | 성 명 | | | 비고 |
|-----|-------------------------------|----------------|-----------|--------|--------------------|-----|
| | | | 한글 | 한자 | 영문 | |
| 24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동북아시아 제1과 | | 아사토 키슈 | 安里 貴舟 | ASATO Kisyu | |
| 25 | 일본상공회의소 | 이사·국제부장 | 니시타니 카즈오 | 西谷 和雄 | NISHITANI Kazuo | |
| 26 | 일본상공회의소 국제부 | 과 장 | 니시자와 마사즈미 | 西澤 正純 | NISHIZAWA Masazumi | |
| 27 | 일본상공회의소 국제부 | 주 사 | 야다 히사토시 | 矢田 久俊 | YADA Hisatoshi | |
| 28 | (일사)교도통신사 |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 사토 다이스케 | 佐藤 大介 | SATO Daisuke | |
| 29 | (일사)일한경제협회 | 고 문 | 코레나가 카즈오 | 是永 和夫 | KORENAGA Kazuo | |
| 30 |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전무이사 | 우치다 토시아키 | 内田 敏明 | UCHIDA Toshiaki | |
| 31 | (일사)일한경제협회 | 상무이사 | 나카야마 요시아키 | 中山 喜昭 | NAKAYAMA Yoshiaki | 사무국 |
| 32 |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상무이사 | 치기라 타이조 | 千吉良 泰三 | CHIGIRA Taizo | |
| 33 | (일사)일한경제협회 청소년교류센터 | 담당부장· 센 터 장 | 김유정 | 金侑貞 | KIM Yujung | |
| 34 | (일사)일한경제협회 | 총무부장 | 카지야마 치카코 | 梶山 智香子 | KAJIYAMA Chikako | |
| 35 | (일사)일한경제협회 조사부 | | 나리타 마미 | 成田 真美 | NARITA Mami | |
| 36 | (일사)일한경제협회 총무부 | | 이사와 마사코 | 伊沢 雅子 | ISAWA Masako | |
| 37 |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 오카모토 준 | 岡本 峻 | OKAMOTO Jun | |
| 38 |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 스도 슌 | 須藤 俊 | SUDO Shun | |
| 39 | 한-일 국제통역사 | | 최은주 | 崔銀珠 | CHOI Eunju | |
| 40 | 한-일 국제통역사 | | 나가토모 에이코 | 長友 英子 | NAGATOMO Eiko | |
| 41 | 한-일 국제통역사 | | 이춘경 | 李春京 | LEE Chunkyoung | |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 결과

1. 제2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20명)



2. 좋았다면 그 이유는?

- 기업간의 세부적인(친밀한 교류)교류를 지원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발표가 전반적으로 유익했고, 다양한 한일경제관계자가 모여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음
- 이해의 폭이 넓고, 양측의 협력을 통한 가치의 증대가 가능한 분야가 확인되었음
-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가 증진되었음
- 신사업에 대해 양국이 생각하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인적 교류의 중요한 자리였음

- 최신 산업(수소산업)한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되어 유익했음
- 콘텐츠 협업제안, 돌봄로봇 한일간 협력분야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가장 가까운 한일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 덕분에 양국간에 서로 왜 윈윈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었음
- 여러 분야의 경제인들과의 교류가 가능했음
-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음
-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좋은 제시가 있었음
- 기본적으로 한일 협력에 관심이 많은 회사, 정부관계자가 모이므로 네트워킹하기 쉽고, 좀 더 오픈해서 이야기 하기 쉬운 환경이어서 좋았음. 더불어 발표는 한일/국민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법 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

3. 아쉬웠던점은?

- 질의응답 세션 준비를 위해 사전 자료 배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 본회의 날에도 별도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마련 희망

4. 주제발표 및 회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에 대해서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한일간 공동의 과제로 함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현재 국제적으로 관심있는 신산업의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음
- 일본시장 진출비결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고, 수소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가치있었음, 더불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금번 회의는 기업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회의였어서 뜻 깊었음
- 양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한일 양국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 뜻깊은 자리였음
- 알차고 친절함 배려있는 자리를 준비해준 사무국에 감사
- 하쿠호도(일본측)발표가 너무 자사 광고같고 주제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음
- 어려운 관계가 지속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신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

- 정부 단체, 유관기관의 참석이 대부분인 것 같은 느낌, 일반기업의 참석또한 많아졌으면 함
- 수소에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금번 회의에 참석하였음, 당사 외에도 여러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도 제일 관심이 쏠린 내용 같았고, 여러사람들의 질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음. 개인적으로는 수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워킹그룹 등으로 파생해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룹도 생성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음. QA세션에서는 가능한 한 주최측 코멘트는 간결하게 해 주었으면 함



<회의전경>



<단체사진>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체어맨>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대표인사>



<본회의 전경①>



<본회의 전경②>



<개회인사 : 이인호 한국측 চে어맨>



<개회인사 : 아소 일본측 চে어맨>



<코디네이터 인사 :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코디네이터 인사 :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주최기관 인사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주최기관 인사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제1세션 : 박성빈 아주대학교 교수>



<제1세션 : 소마 히로히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업무총괄역>



<제2세션 : 박상수 산업연구원 실장>



<제2세션 : 이시이 준야 하쿠호도 부장>



<질의응답① : 서가람 주일한국대사관 상무관>



<질의응답② : 나루세 마사하루 호텔오쿠라 회장>



<질의응답③ : 오사 히사미즈 일한문화교류기금 사무국장>



<질의응답④ : 김덕길 카네다 홀딩스 회장>



<질의응답⑤ :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질의응답⑥ : 황진오 삼성전자 재팬 부장>



<질의응답⑦ : 고동욱 한국우량진흥제품협회 회장>



<질의응답⑧ : 사토 다이ске 교도통신사 기자>



〈Reception : 인사말하는 이인호 한국측 চে어맨〉



〈Reception : 인사말하는 아소 일본측 চে어맨〉



〈마무리 폐회인사를 하는 우치다 전무이사〉



〈Reception 참가자〉



〈Reception 전경〉